

# 공립의료원 직원들 타락 어디까지...



전남도 출연기관인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직원들의 도덕성 해이(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었다. 순천의료원의 납품 비리에 이어 이번에는 강진의료원 간호사, 행정직원들이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입원진료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협세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어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전남도는 최근 3일간 강진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3년 동안 병가를 내지 않고 입원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된 간호사, 직원 등 40여 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의료원 행정직원 A씨는 지난 2012년 6월 7일부터 18일까지 폐렴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수속을 한 뒤 정

## 강진의료원 간호사 등 나이롱 환자 행세 보험금 타 직원 입원비 할인 악용...전남도 감사 40여명 적발 순천의료원 납품 비리 이어 도덕적 해이 도 넘어서

상근무하는 등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에 걸쳐 58일간 허위 입원하고 입원확인서를 받아 보험사에 입원진료비를 청구했다. A씨가 받은 보험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또 강진의료원 간호사, 행정직원 등 40여 명이 병가 등의 조치없이 입원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위반사실을 확인중이다. 전남도는 이들 관련자의 처벌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교통사고, 질환 등으로 실제로 몸이 아픈데도 업무가 밀

려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의료원은 직원이 입원할 경우 입원비의 절반을 할인해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직무 관련 문제점이 있는 지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처음이어서 일단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수사외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의료원은 지난해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부실 시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17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교 의료장비의 제조일자를 바꿔 신

형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A(55)씨와 이를 묵인한 혐의(배임)로 순천의료원장 B(61)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32명이 근무하는 강진의료원은 지난 2012년 30억29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 2015년 8900만원 등 4년 연속, 16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순천의료원 역시 2010년 7억1000만원, 2011년 14억3100만원, 2014년 13억7800만원 등 5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의 부채는 각각 99억8000만원과 99억5800만원으로, 2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순천의료원은 13억4300만원(국비 6억7200만원, 도비 6억7100만원), 강진의료원은 38억2300만원(국비 19억3400만원, 도비 17억8900만원, 시군비 1억원)의 보조금으로 받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산단 비리’ 임성훈 전 나주시장 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8일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임성훈(57) 전 나주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시장은 2012년 1월 나주 미래산업단지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사 대표 이모(여·42)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W사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원 상당을 무담보로 인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7월 이씨에게서 20억원을 6개월간 담보 없이 끌어다 쓴 혐의도 뇌물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대출받는 경우에 비해 용이하게 거액을 융통하는 금융상의 편의, 즉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시장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사업 관계자에게 이익을 받았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자금을 용이하게 융통해 사용하는 무형의 이익이어서 재산상 이익을 받은 뇌물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임 전 시장은 산업단지 세 곳을 조성하면서 계약이나 담보 없이 시공사에 사업비 2058억원을 내주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았다. 그러나 1·2심은 “나주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이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대법 ‘배우 성현아 성매매 아니다’

○대법원이 사업자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배우 성현아(41)씨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지난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3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가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진정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선정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사무장병원, 대체 얼마나 남는 장사길래...

# 인테리어 업자가 한방병원 개설 국민혈세 1년에 10억원씩 빼내

광주지법, 실소유주 점유 4년 명의 대여 한의사 2명도 점유

도대체 얼마가 남는 장사길래 ‘사무장 한방병원’이 활개치는 걸까. 병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한 사무장 한방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년에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았다. 요양급여만으로 월 8000만원가량 수입을 올린 셈이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수익은 크게 오른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사무장 한방병원’에 명의를 제공한 한의사 이모(46)씨와 또 다른 한의사 이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인테리어 업자 서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씨와 공모해 행정 실무를 담당한 병원 행정국장 하모(50)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한의사 이씨와 명의 제공과 월급을 받기로 공모한 뒤 2010년 8월1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사무장 한방병원’에 명의를 제공한 한의사 이모(46)씨와 또 다른 한의사 이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용을 교부받았다.

서씨는 또 다른 한의사 이씨와 공모해 2012년 12월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사무장 한방병원’을 개설, 2013년 1월5일부터 2014년 5월 7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억54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실제 병원 소유자인 서씨는 인테리어업과 부동산 등을 하며 돈을 모은 자산가로 한의업계의 불황에 따라 신용불량에 빠졌거나 경제 여건이 어려운 한의사들을 모집해 진료와 안정적 급여 보장을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사무장 한방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장 한방병원에 고용된 한의사는 일반적으로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약 3년4개월간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으로 약 21억원을 청구해 편취했다”며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클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실제 한의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요양급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혈하는 공군 장병 광주시 광산구에 주둔 중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 장병이 지난 17일 부대로 찾아온 광주전남혈액원 현혈차에서 현혈하고 있다. 공군 1전비는 최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보유량이 적정 보유량인 5일분 에 크게 미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현혈 운동을 펼쳐 약 23만ml의 혈액을 모았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 욕하고 때리고 감금까지...‘데이트 폭력’ 피해 호소 줄이어

광주·전남 2주간 29건 접수

3개월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전 애인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욕설과 협박을 하고 현관문을 부순 남성. 헤어진 전 애인에게 3년간 하루 3회 이상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배회하며 공포감을 조성한 남성. 술을 같이 마시던 중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얼굴을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남성... ‘데이트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2

주간 광주·전남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 폭력 피해 신고가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에서 18건, 전남에서 11건이다.

광주경찰청은 18건 중 8건(불구속 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 4건, 상해 2건, 협박 1건, 성폭력 1건 순이었다.

전남경찰청은 피해신고 11건 중 6건을 수사해 1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5건은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2건, 협박 2건, 체포·감금 1건, 성폭력 1건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사전전담팀을 설치·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사법처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지리산, 온천지구 모텔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현재 휴업상태,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 융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리모델링 후 (3억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오피스텔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건물 중 701호(7층전체) 130평(실평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융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3백만원 임대중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20층, 76평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사무실 전용
- 매매-2억2천만원
- 투자기치 좋음

주인직거래 H. 010-3605-5000